

■ 6·25 동란을 회고하며

그들의 영원한 전쟁

■ 권태康 (검교공파총회장)

“한국은 북한과 정전협정 50주년을 기념했다. 그럼에도 많은 참전용사들은 분개했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고 북한과의 해빙도 믿지 않고 있다. 예전에 정찰병이었던 권태강은 집에 있었다. 그들은 정전협정50주년을 기념할 것인가. 서울과, 북한, 중국, 미국 그리고 유엔이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일시적으로 종료시킨 경계, 판문점의 전쟁 기념비앞에서 연설이 행해질것인가? 100명의 참전용사들이 왔지만 권씨는 빠졌다. “난 기념식을 보면 안돼” “내 자신 전쟁중이었어.” 그는 투덜거렸다.

권씨는 전쟁에 대해 그보다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걸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숫자만을 볼 뿐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것은 분명하다. 그 전쟁은 3년간 계속되었고 소중한 300만명이 죽었다. 그건 또한 체제의 충돌이었다. 중국과 소련은 북한을 유엔과 미국은 남만을 후원했다. 그 전쟁은 평화협정없이 정전협정으로 1953년 끝났다. 이 3년전쟁이 권씨의 모든 인생을 결정해버렸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겨진 카드, 사진, 훈장 등을 보여주었다. 기억은 쉽게 거슬러 간다. 그가 2년 뒤 전지전투로 되돌아 갔을 때 그 낮은 계곡에서 끝나버렸지만. 그가 전쟁의 소동속에 거리를 달렸을 때 유탄이 그의 왼쪽 종아리에 구멍을 냈다. 그는 자기자립을 높이 짓했다 작은 상처자국이 있지만 아무도 처치할 수 없었다. 그래서 권씨는 질질 끌며 몇 달 동안 지내려고 지하실을 준비한 가족에게로 돌아왔다. “그때 물을 얻어오기 위해서 밤에만 거리



로 나갔다.”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1950년 10월에 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때 남쪽 부산에서 군사훈련 입영통지가 왔다. 그건 위기시의 기본 병역의무였다. “그동안 우리는 단 한번도 잠잘 시간이 없었다.” 3달 뒤 권씨는 오늘날 본격적 남쪽 미군병사들이 “피의 능선” “비통의 능선”이라고 명명한 가장 악명 높은 전선에 배치되었다. 총알이 쏠릴 컷가를 스쳤고 그는 통신팀이었다. 오늘날도 그는 그가 한국군 3군단이 케말 된 1951년 7월 현리 통신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권씨 가족은 서울 한 아파트 8층 진강씨의 거실탁자 둘레에 앉아 있었다. 아내, 아들 그리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전쟁얘기가 어떤지 그다지 자주 듣지 않았다 “전쟁에 대해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권씨의 1960년생 아들 영준이가 말했다. 그 가족은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는 밀린 공부를 다시 했으며 동시에 여러 일지리를 전전했다. 권익용호자,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일했고 건설회사(파산)를 지립시켰다. 오랫동안 가족은 보험회사에서 일한 어머니의 수입에 의존했다.

1989년 대장암수술이후 권씨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좌초된 사업가로서 회사 퇴직금 청구권도 없다.

권씨는 적어도 나라가 그를 기억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훈 연금은 2년 전부터 비로소 받고 있는데 보잘 것이 없다. 올해 월8만원으로 인상되었다. 5월 그는 1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충을 호소했는데 단 하나의 답신만을 받았다. 거기엔 권씨의 질의가 검토되고 있다고 되어있었다.

그의 청원에 있어서 그는 혼자자 아니다. 6·25참전 용사회 성동지부 회장이었다. 그는 월 500원-환산하면 한번에 40센트가 안되는 출자금이나 너무 많은 것으로 느꼈던 동료들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에게 줄 돈은 있지만 참전용사에게 줄 돈은

없다” 권씨는 전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풍자해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노무현대통령도 보고 있다. 한국은 매년 북한경제를 위해 대규모 구조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 아주 비슷한 얘기를 전해만해도 하고 있다. 그는 한국전 우수병사 회 도봉지부를 이끌고 있는 참전용사이다. 그 또한 월 8만원 모욕이라고 느끼고 있다. 정부로부터 그는 배반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한국에서의 반미주의를 비판했다. 토요일 500명의 시위자들이 전쟁 이후 주둔하고 있는 37,000명의 미군철수를 촉구했다. 그들은 새로운 한국전 발발의 가능성을 미국인에게서 보고 있다.

게다가 거년 미국 전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전 나라가 분개했다. “왜 모두들 여학생만 생각하고 병사들은 생각하지 않는가?” 전씨는 투덜거리며 물었다. 그는 작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보고 있다. “감정일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를 공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라크에서의 사담후세 인같은 운명을 맞도록 우리는 그 정권을 분쇄해야 한다. 그런 전쟁이 사막나라의 출정보다 많은 시민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그걸 통해 김이 제거된다면 희생은 감소해야 된다고 전씨는 말했다. “북한은 어쩔 수 없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의미한다. 그는 자기 부인이 북한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전쟁 이후 그녀는 친척들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녀는 북한을 여러달을 타내기 위해 관광객에게 개방한 금강산 휴양지로의 여행 때 비로소 처음으로 다시 북한 땅을 밟았다.

전씨부부는 전쟁 중에 알게 되었고 전씨는 북한 평양 근방에 배치되었다. 권씨와 딸이 77살인 전씨는 50년대 초반에 벌써 군대에서 패 승취한 바가 있었다. 소위 계급이었고 미군에 배속되었다. 6명의 북한군을 생포하고 한명의 미국인을 구출한 무훈으로 그는 유명해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 군대에 가도록 강권했다. 그는 군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걸 꿈해하고 있다.

그의 손자들만이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 둘은 20대 초반인데 한국을 북한에 팔아치우려 했던, 50년 정전 후에 안되는 출자금이나 너무 많은 것으로 느꼈던 동료들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에게 줄 돈은 있지만 참전용사에게 줄 돈은

임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대회비 △권정달(총 재) 5월 700,000원 △권태일(고 문) 5월 200,000원 △권영생(부총재) 5월 500,000원 △권오영(부총재) 5월 200,000원 △권규환(부총재) 5월 200,000원 △권오홍(부총재) 5월 100,000원 △권혁준(부총재) 5월 200,000원 △권세택(부총재) 5월 800,000원 △권세덕(부총재) 2011 1,000,000원	소계 3,900,000원	■ 대의원회비(2011년회비) △권윤근(연천) 100,000원 △권호진(성남) 100,000원 △권장세(춘천) 100,000원 △권희성(아산) 100,000원 △권영방(안양) 100,000원 △권태근(수원) 100,000원	■ 찬조금 △권오준(부총재)총회선물 2,000,000원 △권홍서(부총재)총회 1,000,000원 △권길성(부총재) 100,000원
	소계 1,200,000원	소계 600,000원	소계 3,100,000원
		소계 600,000원	합계 8,800,000원

■ 역사기행

고불(古佛)맹사성(孟思誠)선생의 묘소를 지나면서

■ 향촌 권오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조선조 세종때의 문신인 고불 맹사성(1359년 공민왕8년)-1438년(세종20년)선생은 조선초기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훌륭한 정치가이자 선비이고 청백리의 귀감이 되는 후세에 추앙받는 명상이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우연치 않게 광주시 직동로 222번지에 소재한 선생의 묘소를 지나게 되었다.

선생의 묘소는 경기도 기념물 제21호(1974.9.26지정)로 지정되어 선생의 묘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선생의 묘역은 다소 협소하고 사성은 묘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봉분은 평범하고 상석 혼유석 괴유석 향로석 주막석이 배치되어있고 문인석이 좌우에 배열되어 있다. 금강되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선생의 묘 근처에는 후기(黑驃)의 무덤이 있는데 선생이 늘 타고다녔던 소의 무덤이다.

선생은 신창맹씨(新昌孟氏)고려 전교 부령(典教副令)이었던 회도(希道)의 아들이 사성(思誠)이다.

자는 자명(自明)이고 호는 고불(古佛), 동포(東浦)이다.

선생은 안동 권문(權門)의 현조(賢祖)이신 양촌(陽村)권근(權近)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일찍이 화통연원을 가지셨고 양촌 권근선생의 뛰어난 문인으로서 고려 우왕 12년(1386년) 27세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춘추관 교yles을 맡으면서 고승(典儀丞) 등을 거쳐 조선조에 들어와서 예조 정랑 간의 이조참의 이조참판 수원관판 시어사등을 역임하고 판서와

좌·우의정을 지냈다.

세종12년(1450년)에는 태종실록을 감수하였고 팔도지리지를 찬진(撰進)하였다.

음월에 밝아 악기도 제작하였으며 향악을 정리한 공이 크다.

시문에 능하였을 뿐만아니라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를 저서하였고 청렴결백하여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 이에 못지않은 안동 권문에도 권태사공 18세손 빈(璘)어른께서는 문과에 급제하여 행적 으로서는 전한(典翰)에 오르셨다.

조선조 청백리에 안동 권씨로서는 유일한 분으로서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남산에 권선생 신도비가 서있다.

고불 맹사성의 일화를 살펴보자.

어느날 예조판서가 선생의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그때침 여름 소나기가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의 집에는 비가 새고 있었다. 그날 예조판서는 탄식하며 재상의 집도 이러한데 어찌 내가 행랑체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공사중인 행랑체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효를 근본으로 삼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일관하였다.

고향인 안양을 내왕할때도 간소한 차림과 단출한 종복을 데리고 소를 타고 퍼리를 불며 다녔다.



자치동간 제1화 이사가100

전진 부견의 등장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중원을 차지했던 서진(西晉)에 오호(五胡)에게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진(晉)을 재건하여 이를 역사에서 동진(東晉)이라고 부른다. 진(晉)이 남쪽으로 내려간 자리에는 성(成), 전(前), 후(後), 전(前), 전(前) 같은 나라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옛날 전국 시대에 중원을 통일하였던 진(秦)나라 지역에서 다시 부견(苻健)이 진(秦)을 세우는데 역사에서는 이를 전진(前秦)이라고 한다.

부견은 오호 가운데 한 족속인 저족(氐族)으로 대대로 중원의 서북쪽에 살던 족속이다. 부견이 전진을 세웠을 때에는 동쪽에 전연(前燕)이 있었고, 후조와 전량(前凉)이 서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중원의 지역은 남쪽의 동진 말고도 네 나라가 각축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전진이 건국하여 25년이 지나니 사이에 전진의 천왕 부견(苻堅)이 이를 여러 나라를 차례로 멸망시켜서 북쪽을 재통일한다.

이 전진왕 부견은 승려 순도(順道)를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보내면서 불경을 불상을 보내는 것이 역사적

인 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이다. 부견이 불교를 고구려에 전한 지 12년이 지나서 남쪽에 있는 동진에서는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에 마라난타(摩羅難陀)를 보내 왔다.

이러한 부견도 순탄하게 천왕(天王)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원래 전진을 세운 부견의 조카였다. 따라서 그에게 황제의 자리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부견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4촌인 부생(苻生)이 황제의 자리가 되어 받았다. 그런데 부생은 한쪽 눈이 멀었다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핸디캡 때문에 후시 자기를 비롯하지 않음까 항상 신경을 썼다.

그래서 부생 앞에서는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건간에 그 말 속에 ‘나머지, 모자람, 치우침, 한 짝, 적음, 없음, 갖추지 못한’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뱉어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사람을 죽였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폐하게서 다스리니 세상 사람들이 태평하기를 부를바입니다.’라고 하였다니, ‘너는 나에게 아부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목을 베었다. 또 어떤 사람이 ‘폐하게서 내리는 행벌은 조금 지나칩니다.’라고 하였다니 ‘너는 나를 비방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목을 베었다.

그래서 부생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하루를 넘기는 것이 마치 10년을 넘

기는 것 같은 느꼈고, 부생은 옛날 전진을 세우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과 부씨 집안의 친척들도 목을 베이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시대에 부견은 동해왕(東海王)으로 있었다. 분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부견에게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유세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다른 종족이 부생을 내쫓고 황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부씨 조상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부씨 조상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고, 드디어 왕맹(王猛)을 얻게 되었다. 왕맹은 원래 동진지역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동진에서는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전진의 부견이 그를 초빙했던 것이다. 국적과 종족의 한계를 뛰어 넘은 조치였다. 부견이 왕맹을 만나보고는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만난 것과 같이 기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드디어 부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300명을 인솔하고 전진하니 황제 부생을 숙위하던 장사들이 모두 무기를 버리고 부견에게 귀부하였다. 술 취해서 자고 있다가 군사들이 다가오자 부생은 오히려 자기의 숙위병으로 알고 왜 절을 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다가 잡혔다. 어리석은 황제의 최후였다.

(다음호에 계속)

先進 西部유럽 探訪

■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지나호에 이어)

28) 세계 3대 미항 나폴리

3월 9일(일) 호텔에서 아침밥을 먹고 2층 버스를 타고 나폴리로 출발하였다. 안개가 낀 들날 길을 달려며 벼를 내다보니 올리브농장이 많이 보였다.

저 멀리 낮은 산들, 비탈과 평지의 과일 밭, 올리브 밭, 포도 밭, 새파란 밀밭, 언덕 위 숲 속의 붉은 지붕 등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나는 농촌을 지나갔다.

로마를 출발한지 약 3시간 만에 보메로 언덕에 도착하니 육지가 바다를 감싸고 있는 호수같이 잔잔한 나폴리 항을 볼 수가 있었다. 나폴리항구는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평온한 느낌이 드는 도시인 나폴리는 호주의 시드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나폴리는 고대 그리스인이 이 땅에 온 이래 통치자는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남 이탈리아의 중심 대도시로 발전해 왔다 하였다. 각 시대의 소중한 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곳은 스페티가 생긴 피자(피자)의 고장이고 민요(칸소네)의 발상지며 축구선수 마라도나의 고향이라고 하였다.

부르봉가의 시대의 산 카를로 극장, 이탈리아의 삼대 극장 중의 하나로 17세기의 왕궁 Palazzo Reale를 시작으로 대성당이 뒤로, 긴 역사를 가진 도시의 거리 스파카 나폴리, 안주가의 누오보성, 카포 디몬테국립미술관, 나폴리 국립고고학

물관 등 유수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나폴리에는 카프리섬과 이스치아 등 2개의 섬이 있는데 나폴리 만에서 배로 1시간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였다.

29) 화산폭발로 묻혀 져던 폼페이

로마제국의 번영했던 도시인 폼페이는 79년 8월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도시 전체와 2만여 명의 주민이 함께 화산재에 파묻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고 하였다.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 속에 덮여버리는 폭발 이전에 몇 차례 경고를 했었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한 순간에 폼페이 사람들을 고대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미라의 형상으로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베스비우스 화산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폼페이를 삼켜버렸을 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폼페이는 로마제국의 어떤 도시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위락시설로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리조트 도시였고 농업과 상업도 발달해 있었다고 한다.

BC 62년에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는데 시민들이 힘을 합쳐 주택과 사원들을 재건해 겨우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 후인 BC 79년 신

의 분노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강진을 동반한 폭발로 고스란히 화산재 속에 묻히고 말았다고 한다.

화산재와 용암이 응결하면서 거리 전체가 마치 찌는 솔과 같은 형상이 되면서 도시전체가 그대로 매몰되었다고 한다. 그 후 잔디와 덩굴식물들이 자라 그 자리를 덮게 되면서 폼페이는 도시라는 이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1,500년 동안 역사의 저편에 사라져 있었다고 한다.

17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조심스러운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로 그 당시의 폼페이가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과 건축수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폼페이가 로마제국으로 편입되었을 때 로마사람들은 폼페이를 자리적으로나 지형적 특성에 맞게 고쳐나갔다고 한다.

도로 포장된 도로에 하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를 조금 높게 올렸고 원형극장에는 보행자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통제했다고 한다.

폼페이는 9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폼페이 시로 들어가는 관문 근처에는 여관과 마구간과 병원이 있었고 시내 중심 거리에는 선술집과 현재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 카페들은 로마인들이 공중목욕탕에서 목욕 후 간단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였다.

폼페이의 유적 발굴을 통해 드러난 현재의 모습들인 하수시설, 목욕탕, 시장, 극장, 원형 경기장, 빵집, 음식점 등 각종 시설들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대의 그것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함을 짐작 할 수 있었다.

〈끝〉